

외사를 끊은 '대우' 선봉車

현장취재 인천 대우자동차 공권력 투입현장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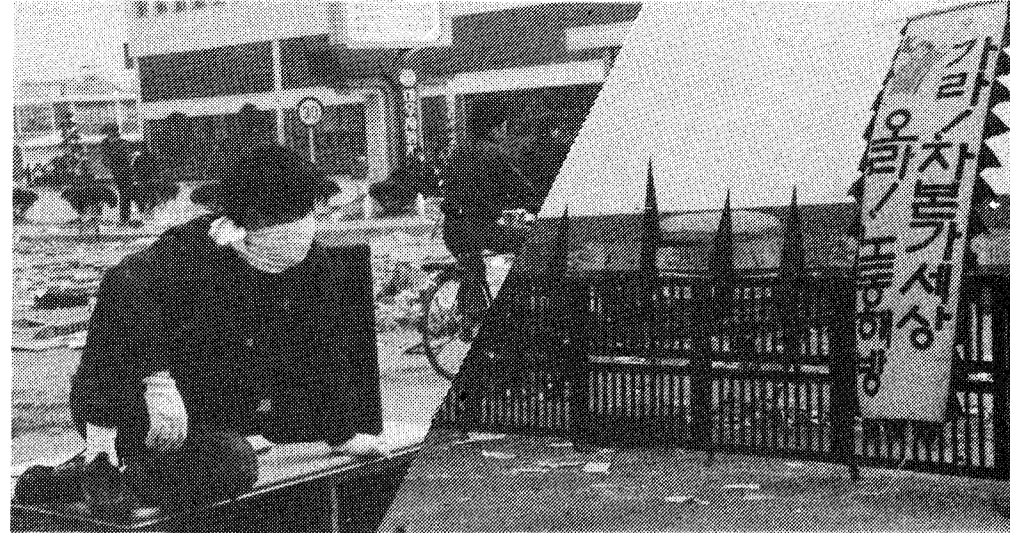
'핵심 사업장에 대한 선제공격' 최근 노동조합의 사례들을 볼 때 정부와 자본가들의 노동운동 탄압의 기본 골자는 위의 한마디로 일축될 수 있다. 특히 핵심사업장 중에서도 '대기업 연대회의'에 가입한 사업장들이 선제공격의 타겟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대우조선 파업사태에 대해 지원 방안을 의논했던 3차기업으로 '연대회의'간부들 7명을 구속한 것부터 시작해 부산노련에 가입된 대우정밀의 경우 3차기업 협회와 업무방해 혐의로 노조간부들이 연행되었으며 한진중공업 경우에는 노조위원장 석방요

구에 대해 90년 말부터 생긴 '순해배상청구소송'이라는 신종탄압 도구로 탄압하고 있으며, 포항제철같은 경우 여러가지 방법의 탄압에 의해 노조원이 한달여 동안에 10분의 1로 감소하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 이 외에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등도 노조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탄압사태들을 볼 때 현 정부와 자본가측의 노골화되고 있는 노조탄압정책의 기본골자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시정권 대낮에 노동조합이 침탈당하고 노조교섭대외의장인 위원장 직무대행이 2차교섭 전날

강제연행당하는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 투쟁! 투쟁! 투쟁!……—대우자동차 노조 '투쟁속보'에서 인용"이라고 외치며 3일간 조업을 거부했던 인천 대우자동차연구도 정부와 자본가 측의 '핵심사업장에 대한

대우자동차는 이은구위원장과 장재홍조직부장이 연행되는 등 계속되는 노조간부들의 연행구속에 대해 연회투쟁과 단식농성·철야농성 등을 전개했다. 이에 정부와 자본가 측은 위원장, 조직국장의 구속안으로는 대

노조원 박씨는 이번 사태에 대해 "4-5월 본격적인 임투시기를 앞두고 각 지역의 핵심사업장의 노조핵심간부를 연행함으로써 공동임투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속셈이요"라고 말한다. 작년에 비로소 민주노조 집행부가 들어서게 되었고 아직까지는 조직적 결집력이 미약한 대우자동차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노조 집행부의 지도력 위축과 노조원 단결력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각 단위사업장의 투쟁에만 매몰되어서는 안됩니다. 조합원들은 타 대기업과 공동투쟁을 전개할 길 바라고 있고"라며 대우자동차



〈좌〉:파업중인 대우자동차의 노동자

우:정문에 나무끼는 노동자의 열망

정부, 선제공격으로 공동임투 무력화 획책 조합원의 주체적 투쟁속에 조직력 확보해야

혼란속 표류하는 의료공제회

'학생의료공제회비' 환불문제를 보며

'의료공제회 제도'가 학생들의 환불요구와 학생처측의 환불제지에 따른 행정상의 미찰이 생겼다. 이는 애초에 의료보험 성격으로 출발한 의료공제회가 '국민보험'실시에 따른 학생들의 혼란과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국민보험과 의료공제회에 이중 가입이 되면서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의료혜택에 비해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학생처측은 지난 88년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 신설된 제도가 오히려 학생들의 불만과 오해를 사고 있다며 의료공제회를 폐지하거나 환불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을 비교해보면 학생들의 이해관계와 학교측의 재정문제가 걸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측은 의료보험 형식으로 출발한 제도가 학생들의 강력한 환불요구에 어쩔 수 없이 환불을 해왔으나 계속되는 적자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주장인 반면 학생들은 평소 병원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며 보험이중가입까지는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처는 지난 4월초부터 '의료보험'중 소지자에 대해 병원금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확대, 공제금여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경희의료원에서 진료료를 받을 경우 양방진료에 한함, 치과진료도 공제금여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김정원(학생처 취업복지과)주임은 이 공제회에 대해 "학생들이 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이 무조건 환불을 요구해와 설득하느라 정신이 없다"며 "그러나 충분한 홍보활동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학생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제회를 실제로 이용하는 학생은 전체학생의 10%정도에 불과하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진료비는 학기당 약4천만원이 넘고 있다. 비록 국민보험이 실시되었다고는 하나 의료보험 수가의 인상, 국민보험의 불안전성으로 이 제도의 필요성은 있다고 학생처관계자는

개인의 이익을 공동체 희생물 수 없다

얘기한다. 이 의료공제회의 운영상황을 보면 지난 88년 생긴 이후 '학생 전원이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최초 시행일 현재 회비를 납부한 인원이 전체등록인원의 80%미만일 경우 의료보장 제도의 시행을 하지 않으며 회비는 전액 환불한다'고 밝혔다.

이런 과정상의 문제를 극복하고 89년 초까지는 대부분의 학생이 호응해 순조로운 운영과 함께 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89년부터 국민보험이 실시되면서 이중부담을 이유로 공제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환불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작년의 경우 40%의 학생이 환불해감으로써 현실적인 운영난에 부닥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제22대 총학생회는 작년 9월3일 학생의료공제회의 실효성과 이용절차, 급여혜택 및 기금에 대해 충분히 홍보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상호부조정신과 경희공공체제에 갖는 차원에서 환불의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총학생회는 의료공제회를 예방의료원에서 까다로운 절차상의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본교 학생의료공제회는 서울 시내 대학중 여섯번째로 지난 88년 1학기부터 설립, 시행하게 된 제도로서 '예산지출만 절감, 부상으로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해야하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행'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한편 7천3백원의 돈을 환불받으려 하는 개인중심적인 생각에서 몇몇 개인이 가입을 꺼리는 것은 이 제도에 대한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 처음부터 보험의 성격으로 출발한 제도가 보험료체정의 부조리와 이용방법이 까다로운 '국민보험제도'때문에 혼란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공제회에서 이중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위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이금주 기자)

우자동차노조의 무력화를 확실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이러한 불안 심리에서 기인한 듯 드디어 지난 8일 대우자동차에 백골단 5백여 명과 사복 경찰 30여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침탈을 감행했다. 이러한 침탈에 대해 긴급 연락을 통해 집결한 조합원 5백여명이 즉각적으로 대응했으나 결국 최용주 노조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총 6명의 노조간부가 연행되어 갔다. 이후 조합원들은 경찰의 침탈에 대해 10일까지 3일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갔다.

의 오락 노조간부는 전노협과 '연대회의'로 구성된 '임금인상과 물가폭등저지 및 노동자기본권 수호를 위한 전국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통한 공동대책수립을 촉구한다. 그러나 공투본 또한 전국중앙조직으로서 구심력과 지도력에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다. 임투공회화, 공투본 구성일등에 있어 공투본의 한계는 각단위사업장 차원의 임투성격을 벗어난 구제적 투쟁의 부재에 기인한다.

이번 대우자동차 탄압사태도 정권과 회사측의 각계각파식 탄압에 즉각적인 공동투쟁의 공백과 노조측의 주체적 투쟁미비의 오류를 남기게 되었다. "장기근속자들이 마음은 있지만 해고당하던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라고 반문할때면 난감해 집니다"라는 오락노조간부는 탄압에 의해 투쟁력이 희석화되는 것을 안타까워 한다. 실제로 대우자동차 공권력투입이 감행되고 즉각적인 규탄집회와 가두시위를 전개할때는 대다

수의 노조원들이 참가했다. 그러나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회사측이 무노동 무임금을 고수하며 회사통근버스, 식당운영의 중단등 탄압을 가해왔다. 또한 중간관리자들은 조합원의 가택을 방문 노조의 투쟁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회유, 협박을 하면서 노조의 조직력 와해를 시도해왔다. 단편적인 결과로 평가될 내일수 밖에 없다면 대우자동차 노조원들의 '구속 동지구출투쟁'은 한발 후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조합원의 절반이상이 출근하지 않고 공청회나 본인토의에 적극적 동참이 이루어 지지 못한 상태에서의 무리한 투쟁은 조합원과 노조집행부의 피리를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제 정상조업에 임하고 있는 대우자동차는 이번 투쟁의 결과

를 분석하고 오류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있을 임투와 메이데이 총파업투쟁, 4-5월의 민중진영의 투쟁과 공동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할 대우자동차는 조합원들의 철저한 현실인식과 계급의식, 공동투쟁 방향성에 대해 각고의 결의를 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투쟁은 일방적인 지원만을 요구하는 지금까지의 관성을 극복하고 민중생존권과 적결된 투쟁을 연대의 틀속에 묶어내는 것이 시급하다.

공동취재반
송보영 기자
방현기 기자

정권의 위기의식이 낳은 문화예술 탄압

스턴 영화의 상륙을 막았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치색을 표백한 오락영화의 정치의 깊은 골자 사이에 빠져 상업적 전 임태장된 불행한 운명을 볼 수 있다. 다음에 언급하는 '심야특급'은 주인공 빌리 헤이즈가 마약 불법소지자 혐의로 이스탄불 공항에서 이륙 직전 체포되는 것으로 시작한다. 택시 운전수의 강박

만 외국까지 갈 것 없이 이제 우리의 영화를 얘기해보자. 문화부는 올해를 '연극·영화의 해'로 정하고 거리 곳곳마다 나붙은 포스터에서 한국 연극·영화의 중흥을 외치고 있다. 지난달 27일, 있었던 개막축전 '연극의 날, 연극의 해'에서는 노재봉 총리를 비롯해 잘 어울리지도 않는 정부·정계

실제로 지난 29회 대중상에서 정치문제를 다룬 영화는 수상후보에조차 달락되는 해프닝을 보였는데, 단지 소재만 정치적인 영화라고 해서 내린 처사는 영화예술에 대한 무지이다. 또한 새 전 문 영화감독집단 '창년'에서 만든 영화 '어머니, 당신의 아들'은 시사적 비판성이라는 이유로 공권력에 의해 필름을 압수당하는 등, '제2의 파업전야'화되고 있다. 사실 이 영화는 제작중에도 상송 경찰서와 교육부로부터 영화제작 중지에 대한 온갖 회유와 압박을 받은 바 있으며, 이 또한 행정권의 위기의식이 낳은 하나의 만행이다. 현행 영화법에서 규정하는 영화제작시 제작신고와 심의에 대한 의무는 영화제작과 상영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려는 상업영화에 한하는 것이므로, 이런 탄압을 가한 당국

머나먼 '연극·영화의 해'

에 못이겨 소지한 마약으로 인해 끝내 심한 고문과 30년형을 언도받는 내용으로 실제의 빌리 헤이즈가 기술한 논픽션 영화이다. 70년대 당시 미국의 닉슨 정권은 중동제국과 사이가 나빴다. 마약의 밀수출국으로 악명이 높았던 터키는 오명만회책으로 회생안이 필요했고, 그때 마침 불리한 관계인 미국의 빌리 헤이즈가 걸려든 셈이다. 이 영화로 실재인물인 빌리 헤이즈는 칸 영화제에서 기자회견까지 한 바 있다. 어쩌면 교묘한 국제정치가 '블랙 선데이'를 주시고 '심야특급'을 살렸다고 나 할까?

의 여러 얼굴까지 볼 수 있었으며, 대통령의 축하전문과 금일봉 전달식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순서였다. 비록, 뮤지컬, 번역극 일색의 행사내용은 지적을 받았지만, 그런대로 신선했다는 언론의 호응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럼 정말 문화부의 이런 사업들은 연극·영화의 중흥을 가져올 수 있을까? 아니, 정권유지를 위한 회유책의 일환이란 그간의 오명을 씻을 수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얼마전 공권에 의해 오명되고 갈려나가는 우리의 영화를

보았다. '연극·영화의 해'의 허상을 본 것이다. 올해는 정부만의 '연극·영화의 해'가 아닌 우리 모두의 '연극·영화의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럭키금성

91년 신제품

이것이 차세대 VGA 컴퓨터!

VGA

1 고해상도 SUPER VGA 채용
2 HERCULES에서 VGA까지 완벽한 호환성 실현
3 별도 VGA Board 구입비용이 필요없는 혁신적 가격

금성마이티 286M ◆본체 : VGA내장 1MB(최대4MB)RAM 40MB HDD, CPU : 180286(12MHz)

◆특장점 : VGA는 물론 MDA, HERCULES, CGA, EGA의 모든 그래픽모드 지원(국비최초)
 ◆그래픽모드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선택해야 하는 불편한 완전해소(국비최초)
 ◆비동부담 없이 초고해상도 실현 ◆하드디스크에서 및 자기전달 소프트웨어 무상제공
 ◆그래픽 소프트웨어의 활용성을 높여주는 MOUSE PORT 기능

금성컴퓨터
금성사

VGA란?(VIDEO GRAPHIC ARRAY)

개인용 컴퓨터의 고해상도 실현을 위해 가장 깨끗한 화질의 표현은 물론 컴퓨터 그래픽에 필수적인 최대 256가지의 COLOR 표현이 가능한 최고 수준의 화면 출력방식입니다.

■본사 및 지역구인 문의처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75-1 (럭키금성 마포빌딩)
 ●유통영업부 (02) 705-3340-43 ●직판영업실 (02) 701-1274
 ●부산영업소 (051) 87-5969 ●대구영업소 (053) 255-1471
 ●광주영업소 (062) 1571-8883 ●대전영업소 (042) 253-4231
 ●교육지원센터 (02) 705-3458-9 ●교육지원센터 (02) 705-3500